

숨막혔던 광주

어제 온종일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뒤덮여
마스크 쓴 시민들 발걸음 재촉... 거리 한산

28일 온종일 광주 전역이 미세먼지·초미세먼지로 뒤덮였다. 마스크를 쓴 시민들은 걸음을 재촉해 실내로 향했고, 거리는 한산한 모습을 보이는 등 시민 건강만이 아니라 일상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광주시는 미세먼지·초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3000만 그루 나무 심기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민이 체감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광주에선 지난 2017년 경보 없이 주의보만 12차례 발령됐으나, 올해는 미세먼지(PM-10) 300 $\mu\text{g}/\text{m}^3$ 이상인 경보가 2차례 발령되는 등 정도는 심해지고 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8일 오전 8시를 기해 시 전역에 미세먼지(PM10·1000분의 10mm보다 작은 먼지) 경보를, 이에 앞서 오전 7시에는 초미세먼지(PM2.5·1000분의 2.5mm보다 작은 먼지) 경보를 내렸다.

광주지역 측정소 6곳 기준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 농도는 384 $\mu\text{g}/\text{m}^3$, 초미세먼지(PM2.5) 시간당 평균 농도는 80 $\mu\text{g}/\text{m}^3$ 를 기록했다.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도 이날 오전 7시를 기해 목포·나주·강진·해남·영암·무안·함평·영광·장성·안동·진도·신안 등 전남 서부권 12개 시·군에 미세먼지 주의보(PM10)를 발령했다. 오전 7시 기준 전남 12개 시·군 미세먼지의 시간당 평균농도는 201 $\mu\text{g}/\text{m}^3$ (측정소 8곳 기준)로 기록됐다.

광주의 경우 미세먼지가 오후 2시까지 고농도를 유지하다가 이후 150 $\mu\text{g}/\text{m}^3$ 미만으로 낮아져 주의보로 떨어졌다. 미세먼지 경보는 평균 농도가 300 $\mu\text{g}/\text{m}^3$ 이상으로 2시간 지속하면 발령된다.

초미세먼지는 오후가 되면서 크게 낮아졌지만 여전히 해제(35 $\mu\text{g}/\text{m}^3$ 미만)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광주지역에는 지난 2017년 미세먼지 주의보 7차례, 초미세먼



미세·초미세먼지 수치가 '심각'을 기록하고 있는 28일, 광주 광산구 송정역 시장 앞 미세먼지 알리미 아래를 마스크 쓴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지 주의보 5차례 등 12차례 주의보가 발령됐다. 올해는 미세먼지 경보 2차례, 주의보 3차례, 초미세먼지 주의보 6차례 등 11차례 경보와 주의보가 반복됐다.

전남은 2017년 미세먼지 경보 1차례, 주의보 7차례 등 8차례, 올해는 미세먼지 경보 1차례, 주의보 8차례, 초미세먼지 주의보 4차례 등 13차례로 증가했다.

광주시는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자 광주 5개 구에서 도로의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살수차를 운행하고 자치구가 보유하고 있는 22대의 습식진공 흡입차도 투입,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에 나섰다. 관내 364개소 비산먼지 사업장에도 자율적으로 가동시간 조정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사업장의 경우 미세먼지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가급적 가동중단을 당부하기도 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급 학교에도 실외 수업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4월에 이어 2차례의 경보는 중국발 황사로 인한 것"이라며 "12월에 이어 내년 1·2월까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주의보, 경보가 계속 발령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우주의 꿈... 하늘로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KSLV-2) 엔진 시험발사체가 28일 발사에 성공했다. 이날 오후 4시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가 수증기와 화염을 내뿜으며 힘차게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날아오른 고흥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75t 엔진 시험 발사
151초 연소 목표시간 돌파... "성공이다" 환호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KSLV-2)의 '심장'인 엔진 시험발사체가 28일 오후 4시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돼 목표연소시간을 달성하고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관련기사 3·6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누리호 시험발사체가 발사 5분여(319초) 뒤 최대 고도 209km를 넘어 지상에서 429km 떨어진 제주도 남동쪽 공해상에 낙하해 임무를 완수했다"고 밝혔다.

엔진 시험발사체는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에 쓰이는 75t 액체엔진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총 3단으로 구성된 누리호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75t급 엔진 4개를 묶고 2단에는 75t급 엔진 1개, 3단에는 7t급 엔진 1개가 사용된다. 이들 엔진이 모두 합쳐진 3단형 발사체는 아파트 15층 높이인 42.7m에 달한다.

항우연은 시험발사체가 목표 시간인 140초를 넘긴 151초 간 연소돼 비행 성능 검증의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시험발사체의 길이는 25.8m, 최대지름은 2.6m, 무게는 52.1t으로 누리호 규모의 절반 정도다.

이날 쏘아 올린 시험발사체는 지난 2013년 두 차례의 실패 이후 발사된 나로

호(KSLV-1)와는 달리 핵심 추진제 75t급 액체엔진을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발사 성공으로 한국은 미국과 러시아, 유럽(프랑스), 일본, 중국, 인도에 이어 7번째 75t급 액체엔진 기술 보유국으로 발돋움했다. 그동안 국내에는 액체엔진과 주요 구성품에 대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설비가 없어 나로호 개발 당시 러시아의 시험설비를 임차해 시험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한국형발사체 개발 사업을 통해 나로우주센터 등에 관련 시험설비가 구축된 상태다. 나로우주센터에는 한국형발사체 개발에 필수적인 지상연소 시험시설·3단 엔진 연소시험설비 등 추진기관 시험설비 총 10종 중 6종이 구축됐다.

이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이날 나로우주센터 프레젠테이션에서 발사 성공을 발표하며 "발사체의 핵심기술이자 개발 난이도가 가장 높았던 75t급 엔진은 오늘 발사를 통해 성능이 검증됐다"며 "3단형 발사체를 개발·총조립하는 과정은 안정적으로 거치면 오는 2021년에는 우리 기술로 만든 우주발사체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는 3단형 발사체로 2021년 2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발사될 예정이다.

/나로우주센터·백희준 기자 bhj@

한전공대 범정부 설립추진위 12월 5일 첫 논의 착수

한전공대 조기 설립을 지원할 가정 '한전공대 범정부 설립추진위원회'가 오는 12월 5일 첫 논의에 착수한다.

28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전공대 범정부 설립추진위원회 첫 회의를 내달 5일에 열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안을 확정 짓는다.

균형발전위는 현재 내부 계획을 회람해 부처별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각 부처는 균형위원회의 계획을 검토해 설립추진위 참여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 이 같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내달 5일 첫 회의에서 참여부처와 운영방식을 최종확정하고, 설립추진위는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청와대·총리실 관계자와 교육부(대학 설립 인허가), 기획재정부(재정),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 국토교통부(부지설립), 환경부(환경영향평가) 등 7개 부처의 설립추진위 참여가 우선 고려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 부처가 추가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균형발전위 관계자는 전했다. 첫 회의에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도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균형발전위 관계자는 "내부 안이 부처간 협의의 결과에 따라 수정될 여지가 있어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며 "12월 첫 회의를 거치면 설립추진위의 구성과 운영, 안전 등이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일보
광주로 띄우는 그림편지 - 신호운
이탈리아 루카 '페이퍼 비엔날레' ▶18면
바이에른 뮌헨 19세 정우영
UEFA 챔피언스리그 1군 데뷔전 ▶20면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Shinsung Motors Safety First Campaign 신성자동차 고객 감사 안전 캠페인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은 신성자동차만의 안전 이벤트!
신성자동차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시어 다양한 혜택을 받아주세요!

신성자동차 세이프티 1st 캠페인

· 일시 : 2018.10.15~2018.11.30
· 대상 : 신성자동차 서비스센터 전 지점



안전 주요 항목
무상 점검



엔진오일
업그레이드



Collection
Event



세이프티
서비스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신성자동차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시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소초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동대로 603번길 20(소초동)
수완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완동)